

교육공무원법 개정안...

교육부, 현재 8.8%서 20% 이상 확대

채용실적 좋은 대학에 행정.재정 지원

내년부터 여교수를 많이 채용하는 국.공립대는 정부로부터 더 나은 행정.재정적 지원을 받게 된다.

대학교수 중 여성의 비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(OECD) 주요국가 평균 수준인 20% 이상으로 올리기 위한 것으로, 교육인적자원부가 25일 마련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에 명시됐다.

현재 국내 국.공립대의 여교수 비율은 8.8%다.

개정안에 따르면 교육대와 산업대를 제외한 26개 국.공립 4년제 대학은 내년부터 3년마다 성별로 편중되지 않게 신규 교수 채용계획(여성교수 채용목표제)을 세우고, 매년 그 실적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.

교육부는 '대학교원 임용 양성 평등위원회(가칭)'를 구성해 각 대학의 여교수 채용 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우수 대학에는 행정.재정적인 지원을 한다.

교육부 관계자는 "대학 교수직의 여성 비율이 지나치게 정체돼 있어 우수 여성인력이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"며 "10~15년 안에 OECD 수준으로 올린다는 목표"라고 밝혔다.

개정안은 2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초 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시행된다. 교육부는 특히 내년에 증원될 국립대 교수 1천명 중 20%인 2백여명을 여성 교수 채용 확대를 희망하는 대학에 우선 배정할 방침이다.

국내 여성의 국내외 박사학위 취득자 비율은 1985년 10.4%에서 지난해 22.9%로 두 배로 늘었으나 4년제 국.공립대 여성 교수 비율은 같은 기간 8.1%에서 0.7%포인트 늘어나는데 그쳤다. 한편 현재 여성 교수 비율이 16% 정도인 사립대도 장기적으로 20% 이상으로 여성교수 비율을 늘리도록 권장된다.

교육부 신현옥 여성교육정책과장은 "대학들은 현재 여교수가 없거나 지나치게 적은 분야부터 연차적으로 여교수 비율을 늘려나가게 될 것"이라고 말했다.

김남중 기자 (중앙일보26면/동아일보A2면/경향신문8면/대한매일신문25면/한국경제신문A38면/파이낸셜뉴스2면/국민일보26면/조선일보A2면)